

“트릭스터에 리니지 감성 담아”

엔씨, 엔트리브 신작 3종 공개

트릭스터M·팡야M·H3 공개
추억의 게임 모바일로 재도약
“귀여운 리니지’ 선보일 것”

엔씨소프트가 자회사를 통해 과거 인기 게임 띄우기에 나선다. 과거 엔트리브소프트의 인기 PC 게임 지식재산권(IP)에 엔씨소프트만의 노하우를 결합해 모바일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일 엔씨소프트는 서울 강남구 더라운에서 신작발표회를 열고 자회사 엔트리브의 신작 3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작은 ‘트릭스터M’과 ‘팡야M’, ‘H3’다.

이성구 엔씨 총괄 프로듀서는 기대작인 트릭스터M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오리지널 철학과 정통성이 있다”며 “트릭스터의 감성에 ‘리니지’의 철학과 노하우를 담아 ‘귀여운 리니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트릭스터M은 엔트리브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서비스했던 ‘트릭스터’ IP를 활용해 만든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원작에서 인기있던 ‘드림 액션’과 2D 도트 그래픽을 계승했다.

원작과 달리 캐릭터간 충돌처리 기술과 끊김없이 이어지는 ‘심리스 월드’를 구현했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렸던



이성구 총괄 프로듀서가 2일 열린 '엔트리브소프트 신작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원작 결말 스토리도 보강하고 매듭지었다.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40개 국가에 출시된 ‘팡야’는 ‘팡야M’으로 재탄생한다. 팡야M은 팡야 IP를 활용한 모바일 판타지 골프 게임이다.

엔트리브는 원작의 그래픽을 업그레йд하고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조작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자는 200여종의 필드와 새롭게 선보이는 ‘팡게이’ 스킬로 판타지 요소를 즐길 수 있다.

노우영 팡야M 디렉터는 “팡야는 캐주얼 게임 한계를 넘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비온드 팡야’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새 변화를 위한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보인 프로야구 ‘H3’에는 엔씨소프트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다. 이용자는 엔씨소프트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AI를 H3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경기 리포트와 하이라이트, 뉴스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또 잠재력을 보유한 선수를 발굴하는 ‘스카우터’와 ‘졸업’ 시스템, 선수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적시장’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심재구 프로야구 H3 프로듀서는 “H3를 통해 야구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트릭스터M과 팡야M의 경우 기존에 출시했던 해외 시장에도 선을 보일 계획이다. H3는 국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한다.

엔씨소프트는 엔트리브의 신작 모바일 게임 3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카허 카젠 사장, 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한국지엠)

창원 사업장 방문해 임직원 격려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 1일 창원 사업장을 방문해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을 위한 시설 투자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조합 및 임직원과 만나 경영 현황을 공유하는 등 현장 경영 보폭을 넓혔다.

이번 카젠 사장의 창원 사업장 방문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미래를 위한 투자 현장을 점검하고, 더불어 회사의 경영 현황 및 도전과제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카젠 사장은 이날 GM의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현재 창원 사업장 내 신축 중인 도장공장의 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면서 현장 안전을 강조하는 한편, 2018년 확정된 미래 계획에 따라 약속된 투자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카젠 사장은 임직원과의 미팅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가 하나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속되고 있고 수입차 시장에서 콜로라도와 트래버스가



한국지엠의 카허 카젠 사장(왼쪽 첫번째)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GM의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창원사업장에서 차질없이 신축되고 있는 도장공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전하는 등 웨브레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카젠 사장은 창원 공장 방문과 함께 창원 지역 내 웨브레 대리점까지 직접 방문해 영업 일선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가졌다. 임직원을 포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해 온 카젠 사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경영현황설명회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현장직부터 사무직까지 전 부문의 직원들과 소규모 미팅을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을 해 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스마일게이트, ‘IP 경영 협의체’로 전환

신임 의장에 성준호 선임

스마일게이트 그룹이 현장 중심 경영 체제로 개편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 경영 체제를 ‘그룹 이사회 체제’에서 ‘그룹 IP 경영 협의체’ 체제로 전환하고,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사진)를 경영 협의체 의장으로 선임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IP 경영 협의체 체제로서의 그룹 경영 체제 전환을 통해 그룹 내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빠르고 투명하게 반영된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준호 신임 스마일게이트 그룹 IP



경영 협의체 의장은 지난해 1월 그룹 컨트론타워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그룹 최고

경영자(CEO)로서 그룹 경영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는 그룹에 신설된 비전 제시 최고 책임자(CVO)를 맡아 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또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역할도 지속적으로 겸임한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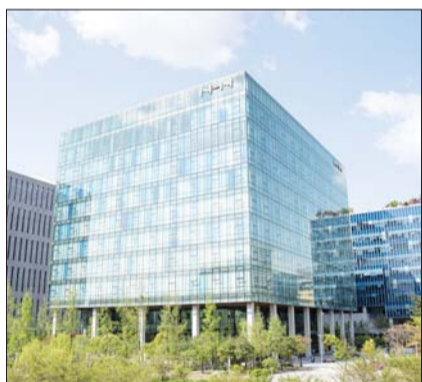
NHN, 게임 자회사 통합... 캐주얼 게임 강화

픽셀큐브-스타피쉬 합병

NHN이 자회사 통합 및 사업조직을 개편하며 올 하반기, 게임사업을 확대한다.

NHN은 게임 개발 자회사 NHN 픽셀큐브가 1일자로 NHN 스타피쉬를 흡수 합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NHN은 모바일 캐주얼 게임 중심 NHN 픽셀큐브와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 NHN 빅풋의 양대 개발 자회사를 중심으로 게임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NHN 픽셀큐브는 2014년 2월, NH



NHN 사옥 '플레이뮤지엄'.

N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게임 개발 및 운영 전문회사다. 일본에서는 ‘라인팝’, ‘라인팝2’, ‘라인팝쇼콜라’로

이어지는 라인팝 시리즈를, 국내에서는 ‘프렌즈팝’과 ‘피쉬 아일랜드:정령의향로’ 등을 출시했다.

흡수 합병된 자회사 NHN 스타피쉬는 ‘PC 한계 게임 고스트’와 ‘모바일 한계 게임 신맛’ 등 주로 캐주얼 보드 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합병 회사의 대표는 NHN 픽셀큐브의 이승해 대표가 맡게 된다.

NHN 빅풋은 ‘야구9단’ 등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오랜 기간 서비스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반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나인 기자

카톡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하면 강력 규제

카카오, 법적 조치 ‘무관용 원칙’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금지·삭제 의무가 부여되는 ‘n번방 방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영역을 강화한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 등에서 운영정책을 위반한 이용자는 서비스 영구 이용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4일 타인의 성착취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정책을 신설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새 운영정책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매매 행위, 성범죄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성적 대상화 등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표현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

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기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운영정책 자체를 명시화하고 알고리즘 윤리현장에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글로벌비스, 폭스바겐 장기계약 수주

해상운송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

현대글로벌비스가 유럽 최대 완성차 제조사 폭스바겐 그룹과 5년 간의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폭스바겐 그룹 내 전 승용차 브랜드가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전체 물량을 단독으로 해상 운송하는 계약이다. 현대글로벌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부터 따낸 해운 계약 중 사상 최대다.

현대글로벌비스는 2일 독일 자동차 제조기업 폭스바겐 그룹 물류 자회사인 ‘폭스바겐 콘체른 로지스틱’과 5182억 원 규모의 유럽발 중국향 완성차 해상 운송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까지 5년(간기본 3년+ 연장 옵션 2년)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폭스바겐 그룹이 유럽에서 생산한 승용차를 매월 10회에 걸쳐 독일 브레머하펜항과 영국 사우샘프턴항에서 상하이, 신강, 황푸 등 중국 내 주요 항으로 단독 운송한다. 운송 물량은 양사 협의 하에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계약 구간은 세계 자동차 해운시장에서 물량면에서 최대로 평가되는 구간 중 하나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 계약으로 다른 항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물 비용이 부족하던 유럽발 극동항 노선의 선복을 대규모로 채울 수 있게 돼 선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